



#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물류개선 방향

안태호 / (사)한국물류관리협회의 회장

## 목차

- 1. 머리말
- 2.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3. 국내 유통산업의 물류개선 방향
  - 3-1. 물류단지의 조성
  - 3-2.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의 분리
  - 3-3. 물류표준화 추진
  - 3-4.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 3-5. 물류인재의 육성

### 1. 머리말

UR의 타결로 인해 이제 세계는 그동안 자국산업보호 등의 명분으로 국가단위로 추진되었던 관세·비관세형태의 보호주의 장벽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무역상의 비교우위라는 경제이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금융서비스업 등 각 부분에서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유통산업은 외국의 유명 대형유통업체들의 직접적인 국내시장 참여가 가능해져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고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포장산업의 대응방향중 물류부문의 합리화 방안을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유통산업은 시장개방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변화에서 아직까지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소비구조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주문

단위의 소량화·다빈도화, 포장단위의 소형화·다양화와 함께 긴급 배송의뢰의 증가, 공급자 위주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 시장으로의 전환, 3D현상과 고임금시대의 도래에 따른 무인화·성력화예의 요망 등과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규모의 영세성과 함께 백화점, 양판점, 편의점 등과 같은 현대적 유통기구의 부족, 유통관련시설의 미비, 포장치수의 통일 미흡, 유통정보화의 지연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어려운 국내의 환경에서 국내유통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의 제3의 이윤원이라 할 수 있는 물류부문을 합리화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경쟁시장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전개가 기업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유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상류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경우 산지유통시설 및 도매시장 등의 미비로 인해 유통단계가 다단계·복잡화되어 중간상인의 가격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도 제조업체의 유통지배력이 80%에 달하는 등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유통업의 참여제한, 밀어내기, 무자료 거래의 성행 등으로 인해 유통질서의 상당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도·소매업의 구조도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 등 소규모업체와 쇼핑센터 등 대규모업체로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물류측면에서도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점차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형태로 진전되고 CVS 등과 같은 근대적 유통기구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져 유통업체의 수배송업무가 점차 다품종·소량화·다빈도화하는데 반해 수송, 보관, 포장, 하역 및 정보유통 등 재화의 이동과 취급을 관리하는 물류기능은 취약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적유통이 상적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유통산업이 갖고 있는 물적유통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정부가 재원조달 문제와 투자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도로·철도·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소홀히 하여 경제성장과 대외무역량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도로의 경우 5조원, 항만의 경우 4천3백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물류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둘째, 고객의 다품종소량, 다빈도 주문에 대응해 제품 재고를 집약·정리해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송하는 물류거점으로서 물류센터 혹은 물류단지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자금과 기술면에서 영세하고, 물류센터의 건설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상의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도 일부 편의점이나 대형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물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의 증가가 곧바로 물류코스트 증가를 유발시켜 기업의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제품의 고급화에 따른 과대포장의 문제와 함께 상품 포장의 규격화·표준화 미비, 팔리트, 지게차 등과 같은 하역장비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과 하역작업의 기계화가 지연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물류비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농수산물의 경우 포장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의 유통이 대부분 BOX단위가 아닌 벌크단위로 이루어져 제품의 파손, 분실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운송장비의 경우 팔리트만 보더라도 규격이 주류업체의 경우는 1200x1100mm, 1100x900mm형태의 팔리트를, 음료업체의 경우 1180~1300x970mm형태의 팔리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등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물류장비의 기계화, 자동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유통업체의 전산화 미흡이다.

POS 도입 점포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12월 15일 현재 바코드를 도입한 업체수는 1,466개사로 1992년의 736개사에 비해 거의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POS 단말기의 보급이 백화

[표 1] 포장관리상 애로사항

구분	과다한 포장재료비	포장자재 또는 기계불량	포장전문 인력부족	수작업에 따른 시간·인력 소모 과다	포장 규격화 곤란	기타
전체	12.7	2.8	6.6	53.3	15.5	9.1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의 물류관리실태 및 당면과제', 1993.12

[표 2] 유통정보화 보급현황

(단위: 개)

구분	90	91	92	93. 12
바코드 등록업체수	151	309	763	1,466
POS도입 점포수	230	825	3,071	-
EDI이용 업체수	8	8	10	-

자료: 한국유통정보센터



점 등과 같은 일부 대형 소매점에 집중되어 있다. 화물추적정보시스템, EOS(자동발주시스템) 등과 관련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유통VAN은 특정기업의 주도하에 네트워크 연결대상이 한정된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이용자간의 거래정보교환은 각기 독립적인 기업 내의 서식 및 표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화의 주체가 대부분 기업 내 표준으로 되어 있어 EDI 간 호환성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 3. 국내 유통산업의 물류 개선방향

국내유통산업이 갖는 이러한 물적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물류혁신을 이루기 위한 물류합리화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3-1. 물류단지의 조성

대부분의 국내유통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자사 물류센터의 건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 주요 지역에 권역별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개별 기업의 물류센터를 집단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개별적으로 건설할 때 겪는 부지매입과 자금조달 등 제반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단축, 도심내 교통량 감소를 통한 원활한 수배송활동과 물류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무자료 상품의 근절을 통한 거래의 투명화로 공정거래풍토도 확립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서 유통업체간 협업화 여건이 조성되어 공동구매, 공동집하, 공동수배송의 추진과 함께 포장, 전표 및 상품코드의 통일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1992년에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물류단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소매업의 경우 95.2%로 제조업의 87.3%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유통업 내에서 물류단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물류단지의 건립을 위해서는 협업화·공동화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전환과 함께 확고한 투자여력의 선행 등과 같은 유통업계 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금융·세제상의 지원,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이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유통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경제기획원, 교통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에 물류단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부처간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농수산물집배센터는 아직 관련법률도 제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공동입법 형태로 가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주관 부처의 선정문제 등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표 3] 정부 각 부처의 물류단지 개념

구 분	유통 단 지	공동집배송단지	복합화물터미널
근 거 법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주무부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정 의	유통업무설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지	최종소비자에 대한 일시적 보관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업무설비의 단지	복합적 물류기능 및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이 가능한 시설
목 적	유통구조의 개선, 유통단지조성, 창고 등 보관시설의 설치등을 통하여 유통산업을 발전시킴	도·소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킴	화물유통체계를 화물터미널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물류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유치시설	화물터미널, 창고 및 유통가공시설, 정보센터 및 도매시장 (도매시장의 기능이 강조됨)	배송시설, 공동관리이용 시설, 공공시설 등 (유통업체의 일시보관 시설로 재고기능적 성격이 강함)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보관시설, 보조시설,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콘테이너 야드 및 컨테이너 화물집하소 (화물터미널 기능이 중심이 됨)

3-2.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의 분리

점차 소량다빈도화되는 주문에 부응해 유통업체가 매출액의 증대와 물류코스트의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류와 물류를 분리해 양자를 시스템화하는 프리세일방식(Pre Sale : 주문판매제)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센터의 건설과 함께 유통업체 내에 물류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서 유통업체는 물류코스트의 절감, 판매사원의 영업력 강화를 통한 판매활동의 효율증대, 물류·영업 각 부문의 기획관리 효율화, 주문·출하 리드타임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체의 창고와 배송차량을 갖고 직접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점에 공급해줌으로써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벤더의 수도 상물 분리의 차원에서 차츰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단지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효과가 큰 유통시설의 교외 이전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3. 물류표준화 추진

물류표준화를 위해서는 포장치수의 표준화와 함께 유니트로드 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포장치수의 표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점차 다양화, 소량화, 고급화되어 포장의 체계화와 적정포장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포장치수의 표준화·규격화가 향후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제품의 적정포장과 함께 포장의 기계화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포장표준화의 일환으로써 펠리트와 컨테이너의 치수를 고려한 포장모델화의 추진을 통해 유니트로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관효율의 증대 및 하역인원의 절감, 하역작업의 기계화·성력화에 따른 상하차 작업시간의 단축, 제품의 훼손방지, 차량회전율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물류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유니트로드 치수에 맞추어서 모든 물류관련 장치 및 기기의 치수를 표준화하도록 하고, 다시 트럭과 대형 컨테이너, 철도화차 등도 여기에 정합성을 갖도록 표준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3-4.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통한 판매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함께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의 보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선행해 각 상품에 대한 공통상품코드의 부여와 함께 상품코드 부착시 바코드가 표시된 딱지(Sticker)나 표찰(Tag)을 별도로 만들어 소매점 내에서 진열되기 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인스토퍼마킹 대신에 제조업체가 생산 및 포장단계에서 바코드표시를 상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소스마킹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상품의 수발주업무가 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상품 수발주상의 착오와 함께 시간지체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상품 수발주VAN(부가가치통신망)의 확대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망을 통한 정보 및 서류의 송수신을 수행함으로써 수발주절차의 간소화와 시간의 절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정기업들의 주도하에 네트워크의 연결대상이 제한되어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유통VAN을 비즈니스프로토콜(거래서식표준 또는 전자서류표준)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유통산업은 물품의 유통이라는 점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앞으로 점차 기업간 네트워크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유통정보시스템(VAN, POS, EOS)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업간의 정보전달에 관해서 데이터교환의 포맷, 코드 등의 사양이 많은 기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5. 물류인재의 육성

물류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에 물류전담부서의 설치와 아울러 물류시스템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며 최고경영층의 물류에 대한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